미니인터뷰 – 장영흥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회원사 화합과 성실시공으로 건설업계 상생의 길 찾기 위해 노력"

설비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한정된 지역건설시장의 투자위축 내지는 중단은 우리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헤쳐나가야 할 과제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 회원사 화합과 성실시공으로 건설업계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장영흥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분리발주 수주를 위한 노력

길이 험 할수록 돌아서 가라는 속담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회는 동변상련의 심정으로 서로가 협조하고 양보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사량 에도 불구하고 여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시공을 통해 수요자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공사량에 대한 설비업계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당위성을 꾸준히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에 가까운 수주실적 감소에도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설비건설업계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

향후 제주특별자치도회의 전망은 지역여건상 상당 기간 동안 투자의 조정국면을 거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꾸준한 외자유치노력과 국제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해군 민 · 군항 기지의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과 정체된 민간투자의 회복을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업계의 위상을 정립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업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본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회는 '회원사의 화합과 공존번영'이라는 대명제 앞에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불굴의 장인 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통해 회원사의 채산성 개선 노력

1.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원현황

1) 회원사 현황

제주시	서귀포시	계
51	5	56

2)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직 책	대표자	상 호
회 장	장영홍	(주) 영 건
부회장	이선치	(주) 장 우
운영위원	김종범	대흥공영 (주)
	현동수	동원설비 (주)
	고문섭	(주) 삼다냉열
	부영선	(주) 신 영
	강태남	(주) 오성냉동
	한은성	(주) 우리기업
	정대석	한라설비 (주)
	유계호	(주) 혜 성
감 사	김창호	한라계장 (주)

3) 사무처 현황

사무처장	김기찬
직원	백경미
연락처	T : 064-755-9828, F : 064-755-9827

2. 도회의 업무

1) 업역 확대를 통한 업계의 수주환경 개선

- 지역투자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 홍보
- 대형공공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 상향요청
-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당위성 홍보
- 외지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의 지역 업체 활용홍보

2)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공익적 수행

- 불우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년 2회에 걸쳐 제주도 교육청에 기탁함으로써 도회의 사회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불우청소년의 면학의 꿈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 업계의 위상고취에도 일조

3) 정부 위임위탁 업무의 수행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공업1종 업체를 대상으로 실적신고 강습회개최
- 실적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 시공능력 평가 자료를 비롯한 입찰관련 적격심사 서류 발급으로 회원업체의 수주활동 지원

3. 제주도회 회원사의 수주환경

1) 실적현황

(단위 : 천원)

2006년	회원수	42
	기성총액	45,242,149
2007년	회원수	46
	기성총액	62,172,799
2008년	회원수	56
	기성총액	52,257,650

2) 회원업체의 수주환경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자본의 투자심리 위축과 외지 자본의 투자 중단으로 외환위기에서도 볼 수 없던 20%에 달하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회원업계의 위기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돌파구를 설비공사 분리발주에서 노력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채산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

무한지식

능률기사 길브레스는 생활 속 과학 천재

호루라기 하나로 7명의 개구쟁이를 길들이는 아빠가 있다. 바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인 트랩 대령이다. 이 영화에서 엄격한 아빠로 등장하는 트랩 대령은 호루라기를 이용해서 자기 아이들을 훈련시킨다. 그런데 사실 트랩 대령보다 먼저 가정교육에 호루라기를 이용한 사람이 있다. 바로 프랭크 길브레스라는 미국인이다.

길브레스는 20세기 초 능률적인 동작을 연구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벽돌 쌓는 인부들의 모습을 보고 일을 좀더 빠르고 능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다양한 분야로 뻗어갔고 집안에서도 항상 능률을 따졌다.

길브레스에게는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로 늘 북적거리는 가정생활이 그가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조끼 단추를 채우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적용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끼 단추를 채울 때 위에서부터 채우지 말고 밑에서부터 위로 채우라고 가르쳤다. 밑에서부터 채워나가면 3초가 되지만, 그 반대로 하면 7초 정도 걸린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었다.

가족들을 모을 때도 12명의 아이들을 일일이 부르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지 않으면 혼쭐이 나거나 용돈이 삭감되었다. 물론 이때 길브레스는 스톱워치를 꺼내 집합시간을 쟀다. 언젠가 집에 불이 났는데 그가 호루라기를 불자 온 가족이 14초 만에 밖으로 뛰어나왔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오죽하면 그에게 '순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능률을 강조하는 그의 연구는 일상생활에만 머물지 않았다.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멀쩡한 편도선을 과감히 떼어내는 수술을 받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 장면을 촬영해서 의사들의 동작을 관찰하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어이없게도 카레라 렌즈 뚜껑을 닫고 촬영하는 바람에 애써 수술 받은 보람도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아무튼 길브레스의 이런 연구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생산현장과 가정에서 동선을 최대한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다. 부엌 싱크대를 평균 신장에 맞춘 높이로 설계하고 주부의 동선을 고려하여 수납장을 배치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길브레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해진 결과 주부들은 집안일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었을까? 세탁기, 청소, 식기건조기 등이 등장했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편한 게 있는데 혼자 할 수 있지 뭐'라며 집안일에 등을 돌린 남자 때문이라나?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中에서